



설 명절 음식 나눠요 30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암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돌봄이웃과 경로당에 전달할 설 명절 바구니를 만들기 위해 전과 나물, 잡채 등의 음식을 만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성씨, 검·경 수사정보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사건브로커 연루 검찰수사관 공판
수사 정보 전달 받은 40대 출석 증언

‘사건 브로커’가 성모(63·구속)씨가 기밀사안인 검·경의 정보를 손쉽게 빼내 수사를 무력화한 과정이 재판에서 생생하게 드러났다. 30일 광주지법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지법 4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A(57)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성씨에게 1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측에 법률 조언 및 수사 기밀 유출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증인으로서는 현재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45)씨가 나섰다. 그는 지난 2020년부터 성씨로부터 수사정보를 받은 상황을 증언했다. 성씨와 A씨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밥값 등을 제공했고, A씨가 진술서를 수정해준 사실 등도 설명했다. B씨는 “성씨가 경찰에서 (코인사기 관련) 수사한 내용, 수집자료, 조사 대상, 수사 방향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나도 성씨를 통해 관련 수사정보를 사전에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씨가 출국금지 여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집행 시기 등을 사전에 알려줬다”면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면 다음날 참고인이 나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했다는 조사 내용까지 전해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 조사받으러 가면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압수당한다는 사실을 성씨가 알려줘서 알았다”며 “이를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검찰에 가는 당일 아침 휴대전화 유심을 갈아끼우고 아내의 차량을 이용해 검찰청사에 도착한 후 차량을 돌려 보내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 변호인은 “진술서는 수정해준 것이 아니라 문서작성 편집만 도와준 것”이라며 “B씨가 성씨에게 전달한 금품이 A씨에게 전달했다는 증거와 A씨가 수사 기밀 유출에 관여한 증거가 있느냐”고 B씨에게 반문했다. B씨는 “성씨가 경찰 고위 관계자와 검찰 관계자에게 사건을 봐달라는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해 밍고 금품을 전달했다”면서 “A씨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한 적은 없다”고 했다. 한편, 성씨는 수사무마 청탁을 대가로 다른 공범과 함께 가상자산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로부터 고가 외제차 등 18억5400만원을 받아 구속된 상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교도소 수형자 통화 녹취 고지안해 위법

통화 지인 4명 위자료 지급 판결

정취 또는 녹음 고지를 받지 못한 채 교도소 수형자와 통화한 부모·배우자·지인들이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됐다. 광주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양섭)는 광주교도소 수형자 A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 일부 승소를 유지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청구는 기각했지만 A씨의 통화를 받은 부모·형제·지인 등 4명에 대한 정신적 손해는 인정해 위자료 각 10만~3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1심에서 승해를 인정받은 통화 상대방 한 명에 대해서는 정부의 패소 판결을 파기 했다. 수형자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부모·배우자·동생 또는 지인 등에게 교도소 내 공중전화기를 이용해 총 13차례 통화했다. 교도관은 통화 내용을 청취했고, 광주교도소는 A씨와 통화한 상대방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점

은 인정했다. A씨는 광주교도소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청취 녹음 사실을 수용자 및 상대방에게 고지 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자신을 포함한 6명에게 총 540만원의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통화는 3분 이내였고 녹음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개인간의 의사소통을 사생활의 일부로 보장하겠다는 사전 고지의 취지를 위반한 것은 법익침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2020년 3월 30일 신형 공중전화카드를 구입하고 7월에 재차 전화카드를 구입했다는 점에서 3월 30일 이후에는 ‘통화내용을 청취·녹음할 수 있다’는 음성자동안내시스템이 탑재된 신형 공중전화기를 사용해 고지가 됐다고 봐야한다”며 3월 30일 이후 통화 상대방에 대한 1심 승소 판결을 파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순천시 100억대 전세사기 일당 4명 검거

순천시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유용해 부동산 투자를 하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은 30일 임대사업자 A(41)씨와 부모, 공인중개사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순천시 조례동의 임대아파트 140여채를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다 세입자 70여명에게 전세보

증금 100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해 전세를 내렸으며,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면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을 건네주는 등 ‘ 돌려막기 ’ 식으로 범행했다. 경찰은 A씨의 임대아파트를 거래한 다른 공인중개사들을 수사해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대입 정시모집 163개 학과 정원미달 광주 6개 대학 36개 학과로 전국최다

전남은 2개 대학 24개 학과 미달
지원 한명도 없는 학과 전국 5곳
인기 높던 유아교육과 8곳 못채워
광주·전남 대학들 추가모집 경쟁

생겼다. 조선대는 군사학과가 유일하게 미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6개 대학(36개 학과)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5개 대학(15개 학과), 전북 4개 대학(30개 학과), 경북 4개 대학(15개 학과), 충북 4개 대학(6개 학과) 순이었다. 전남은 2개 대학 24개 학과가 미달이었다. 광주·전남지역 미달 대학 8곳은 모두 60개 학과로 총정원 1949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지원자는 822명에 그쳤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은 지난해 정시에서도 미달 인원 902명을 기록했다. 정원 미달 60개 학과 가운데 19개 학과는 지원자가 5명 미만이었다. 지원자가 단 한 곳도 없는 학과도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 5개 대학에서 5곳이나 있었다. 전남 소재 대학의 군사학과(여성 모집), 광주 소재 대학의 한국어교육과, 부산 소재 대학의 의식창업학과, 전남 소재 대학 치위생학과, 충남 소재 대학 군사학과(여)가 ‘지원자 0명’으로 파악됐다. 광주지역 대학의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이라고 하지만 이런 추세라면 대학의 존립을 걱정해야할 상황”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지원자가 적은데 신입생 등록을 시작하면 등록 포기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월에 공식적으로 추가모집이 시작되지만 대학

들은 사실상 학생 추가모집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은 매년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집계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시·정시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 모집에 나선 광주·전남 대학은 각각 아홉 개교씩 18개교에 달했다.미충원 인원은 광주권 대학이 1554명, 전남권 대학이 1475명으로 모두 3029명이다. 반면, 최근 마감한 2024학년도 대입 정시에서 모집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적어 정원이 미달한 학과 대부분이 비수도권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 인천, 세종, 울산, 제주 등지는 미달학과가 없었다. 한편, 2023학년도 정시에서는 전국 208개 대학 5243개 학과의 입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381개 학과가 정원이 미달했고, 26개 학과가 지원자 0명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전년보다 미달 학과가 줄어들었는데, 경쟁력 없는 학과에 대해 구조조정을 해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해 지역 대학이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최근 마감한 2024학년도 대입정시 모집에서 광주 대학들의 미달학과가 36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경쟁을 상위권이었던 유아교육학과는 8개 학과가 미달해 광주·전남지역 출생을 저하의 영향을 반영했다. 광주 지역은 출생을 급감으로 올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5곳이 문을 닫을 예정이다. 30일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전국 190개 대학 4889개 학과의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5개 대학, 163개 학과에서 정원 미달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경기권 1개 대학 1개 학과에서 미달이 발생했으며, 나머지 34개 대학 162개 학과는 모두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광주·전남에서는 모두 8개 대학, 60개 학과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국·사립대를 대표하는 전남대와 조선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에서 미달 학과가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호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